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친구같은 책 만들 것”

우리출판사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가족들이 자신들이 펴낸 대표 불서를 한 권씩 들고 모였다. 이들은 앞으로는 '정겨운 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는 출판사 이사장 무구 스님.

“명료하고 쉬운 불서, 생활과 가까운 불서 만들고 파
홍룡한 스님을 담은 책. 어린이들을 위한 책 만들 것,,



우리출판사 대표 불서 BEST 2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1	고승열전 시리즈	윤형량	1993
2	질서는 법 99	최정희	2006
3	별처럼 사는 법	이시우	2007
4	노스님의 죽음	지묵	2004
5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적문	2000
6	죽음을 준비합니다	현장	1999
7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구본일	2002
8	불교천자문	덕진	2007
9	신경림 선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	글 오은석 그림 이종삼	2000
10	신경림 선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	글 오은석 그림 이종삼	2000
11	한글 법학 상부경	성훈	2000
1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란	2001
13	눈으로 먹는 절음식	김연식	2002
14	위빠사나 수행법 33일	법산	1999
15	절에서 배우는 불교	해자	1999
16	초발심자경문	지묵	2002
17	살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하라	행린자	2002
18	화두환산	이계묵	2004
19	경 이야기	오타.베스코 저 지성 옮김	2005
20	성훈따주기	성훈	1993

‘우리’ 라는 단어는 참 정겹다. ‘나’와 ‘너’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출판사 이름 앞에 ‘우리’가 붙었다. 이 정다운 이름의 출판사는 과연 어떤 책을 만들어내는 곳일까.

우리출판사를 찾은 것은 1월 15일이다.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서울 충정로 경기대 후문 근처의 출판사를 찾아 올라갔다. 우리출판사에서는 현재 <우리말 지장경> 본문 교정 작업 중이다. 한창 작업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 조금 기다리자나 우리출판사 이사장 무구 스님이 성도재일 철야법회를 불행하고 합류한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스님은 출판사 이야기를 꺼내자 활기를 찾는다.

“불자들이 공부할 때 많이 해야 하는데... 복지 프로 그램 등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 만드는 것이 더 보람 있는지 몰라요.”

우리출판사는 사찰복지로 이름 높은 수호사와 함께 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불교계 출판사 중 우리출판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불서전문 출판사가 9명의 직원이라 놀랍다. 스님은 “아무래도 포교목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 출판만 전담하는 것보다는 부디이 딸한 상황”이라고 밝힌다.

우리출판사는 1980년 설립됐다. ‘따주기’로 유명한 성훈 스님의 뜻을 받은 것이다. 가장 먼저 만든

책은 역시 성훈 스님의 수필집이었다. 그리고는 <법화경> <지장경> 등의 경전 위주로 책을 펴냈다.

“초창기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출판 방향잡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무거운 내용 일색이라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은 생각을 바꿨다. 명료하고 쉬운 불서, 누구나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생활과 가까운 불서를 만들기로. 그 결과 교계 한 편에서는 또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게 됐지만 일반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절사는 법 99> (최정희 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적문 저), <성훈따주기> (성훈 저)처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가 가장 눈에 띈다. 물론 이런 영역이 다는 아니다. 법문집과 경전, 법요집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워낙 방대한 도서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무구 스님이 “이것은 정말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만든 불서가 있다. 바로 <고승열전> 시리즈다.

“왜, 위인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저도 헬렌 켈러, 케네디 등의 전기 읽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불교 역사에 너무나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데 왜 외국사람 위인 전기만 있을까 싶더라고요.”

<고승열전> 시리즈는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책 중 하나다. 스님의 생각이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뜻일 것이다. 위인집처럼 만들어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알려나가는 것에 스님은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스님은 또 어린이 책 만드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신경림 선생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 (글 오은석·그림 이종삼)는 <본생담>의 이야기를 뽑아 어린이를 위해 다시 만들었다. 특히 활자와 삽화 등에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우리출판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람’ 이야기다. 환한 웃음이 인상적인 김동숙 전무와 김동조 부장 말이다. 이들은 1983년부터 우리출판사에서 일했다. 모두 무구 스님의 속가 동생이기도 하다. 온 가족이 부처님 전방에 매달려 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 전무는 넉넉한 웃음과 살뜰하게 사람을 챙기는 마음으로 출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를 시키기 보다는 직접 해내는 경우가 많다. 법요집이 가득 든 상자를 반짝 들어 올리는 모습,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맛있는 반찬을 손수 챙겨다 주는 모습에서는 그야말로 사람 냄새가 난다.

우리출판사의 색깔은 ‘우리’라는 단어 그대로 ‘정겨움’이었다. 불서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정겹기 때문일까, 만들어 내는 불서에서도 그 색깔은 고스란히 묻어난다.

따뜻한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출판사에서는 오늘도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심히 불서를 제작하고 있다.

글·사진=김경진 기자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선(禪)의 황금시대

오경용 지음 · 류시화 옮김 | 경서원 | 1955

전문학자 이시우 박사

새로운 철학의 정신세계 보여

은사 교수께서 퇴직을 하자 내가 기초 교양과정 과목인 ‘인간과 우주’를 강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주’ 쪽은 천문학 내용을 강의하면 되는데 ‘인간’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맡게 되었다. 자연과학에만 정신을 쏟다보니 인문 사회에 대한 교양이 거의 전무한 처지라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었다. 집에서 아내가 사서 읽은 여러 책들을 훑어보다가 <선(禪)의 황금시대> (오경용 지음 · 류시화 옮김)를 골라 읽어 보기로 했다.



우연히 아내가 산 책 훑어보다 발견

선가에서 말하는 ‘알음알이’ 과제

서 무엇을 건져서 ‘인간과 우주’의 강의를 할만한 것을 고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용이 대체로 지나치게 불교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몇몇은 골라서 학생들에게 ‘인간’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스승 곁을 떠나는 동안 스님이 ‘남이 스승의 진면목이 무엇이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운암 스님은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했다. 동산 스님은 ‘바로 이것이다’가 이 단의 뜻을 즉시 생각지 못하다가 넷을 건너면서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이것이다’의 참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시를 지었다.

“다른에서 그를 찾지 말라/오리려 그는 너를 떠나리라/이제 나 혼자 스스로 가니/어디에서나 그를 만나리/그는 바로 나지만/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이것을 깨달아/본래 얼굴과 하나가 된다.”

나는 이 선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 고 이 중에서 “바로 나지만 나는 바로 그가 아니다”를 숙제로 내주면 서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오도록 했다. 허기야 나 자신도 동산 스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학생들에게서 말하는 알음알이와 논리적 사고에 익숙한 나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큰 과제였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다. 내 나름대로 해석도 해보고 또 선사들의 생각을 되짚어 보기도 했다.

<선의 황금시대>를 읽을 때는 여기

시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 무자년 새해선물!!

시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선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 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상식당에서 먹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분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

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화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 진언 “옴” 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가정에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을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이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중지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 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 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방”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본인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만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다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해야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벌리던 난해를 당하므로 근심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손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